metro
메트로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신세계그룹 광주신세계 광주광역시가 지난 11일 광주시청에서 특급호텔 면세점 등을 포함한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좌)과 장재영 광주신세계 대표가 MOU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면세점에 걸신 들렸나

광주시-광주신세계 면세점 유치 MOU — "요건 안돼 사실상 불가능"
관세청 "외국 관광객 30만명 돼야 허가" — 정용진 회사 주가만 급등

광주광역시와 신세계그룹 광주신세계가 체결한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의 협약 사항중 하나인 면세점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기본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과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광주시청에서 지역 신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신세계는 6000여억원을 투자해 광주 서구 화정동 신세계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약 30만㎡ 규모로 특급호텔·면세점 판매시설 문화시설 휴식공간 등을 조성키로 했다. 2016년 상반기 중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9년 7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이전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MOU는 윤장현 시장이 광주광역시에 특급호텔 건립과 면세점 설치를 신세계에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이 들어서면 호남 최초의 면세 쇼핑시설로 새로운 쇼핑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연면적 약 30만㎡는 세계 최대 백화점으로 기네스에 등재된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29만㎡)과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18일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면세점을 유치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면세점 허가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돼야 한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이 기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전혀 심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은 관세청이 판단 후 공고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유치하는 것은 아니다. 매번 많은 대기업들과 지자체들이 면세점을 들먹이며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3만1000명 수준이었으며 올해도 3월까지 관광객 수는 약 1만 명에 그쳤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7배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면세점 유치는 불가능하다. 다만 올 7월부터 개최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관광객이 다수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주시청 관계자는 "유니버시아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 하더라도 폐막 후에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인근 이마트 전경.

광주신세계가 사실상 과장 발표를 하며 주가를 부풀렸을 의혹도 제기된다. 광주신세계는 광주광역시에 랜드마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8일 종가 31만8500원에서 11일 33만원으로 오른데 이어 18일 종가 36만원까지 상승하며 영업일 기준 6일만에 13%나 뛰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사실상 신세계가 광주시의 랜드마크를 건설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정용진 부회장의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광주신세계(2014년 12월 기준 정용진 부회장 지분 52.8%)가 광주광역시와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만 갖고 주가가 오른 것이므로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성봉기자 minus@metroseoul.co.kr

'론스타 vs 한국' 증인심문 돌입

<5조원 요구>

우리 정부 비밀주의에 증인들도 '조개입'·국민, 국외자로 전락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증인심문에 돌입했다. 소송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직 고위직 정부관계자와 금융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모두 26명에 달한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17일 미국에 도착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나머지 증인들은 이번 주 초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07~2009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던 시기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 론스타는 검찰의 외환은행 졸속매각 수사로 인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15일 미국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국익과 명예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해서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리를 담당하는 ICSID의 공정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나 론스타와의 타협 여부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코멘트하는 게 우리 정부에 이롭지 않다"며 입을 다물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최선을 다해 심리에 임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향후 소송전망에 대해 "두고 보자"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ICSID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이 모두 제3자의 심리 참관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비밀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소송 소식에 대한 진위 여부조차 가리기 힘든 때문이다.

ICSID가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병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번 1차 심리에 한꺼번에 출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리 진행상황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광이기자 yoonat@metroseoul.co.kr

'막대한 국부유출 위기' 론스타 소송 서울 외환은행에 쌓여있는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우리정부가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 국제투기자본의 유사 줄소송이 이어져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해 국민은 소송에서 국외자로 전락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병세 구원군' 존 케리 미 일의 노골화에 대한 대응 부재로 거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18일 방한한 케리 장관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 승인 않는 행동, 미·일 절대 안해"

18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일방위지침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도 미국과 일본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한국의 입장에서 승인되지 않는 행동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한·미는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대처하는데 단 1cm도 이견이 없으며 한국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로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며 "한·미는 모든 대북정책에 이견 없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현영철 숙청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비판하기도 했다.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국제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한·미는 동맹을 계속 현대화해 북한이 가하는 어떤 위협에도 완전히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인도 재무장관 "올해 8%이상 성장, 中 추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강력한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인도가 올해 8% 성장률을 전망하며 중국 추월을 자신하고 나섰다. 중국은 7%대에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경제는 올해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커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인도 경제성장률이 7.5%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6.8%에 그칠 중국을 16년 만에 처음으로 추월할 것이라고 봤다.

자이틀리 장관은 인도의 성장세 회복의 핵심요소로 인프라 투자 확대와 세제개편 등 개혁정책을 꼽았다. 인도는 앞으로 5년간 철도에 1370억 달러(145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불합리한 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모디 총리는 지난 중국 방문에서 양국 간 220억 달러(24조원)에 이르는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송병철기자

한-[illegible]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8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올 1분기 성장률 둔화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일제히 둔화됐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성장률 잠정치는 1분기 0.20%로 지난해 4분기 2.20%에서 급락했다. 수정치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3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514억 달러(55조8천억원)에 달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여 만에 최대적자다.

중국 역시 지난해 4분기 7.30% 성장률에서 1분기에는 7.00%까지 하락했다. 중국 통계당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 수치보다 더욱 하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1~4월 지난해 동기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이 6.2%에 그쳤다.

미국과 중국 이외에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3개국의 성장률도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대만은 예외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유로존 국가들은 모두 성장률이 1분기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남유럽 3개국의 성장률이 일제히 상승했다. 이들 3개국은 그리스와 함께 대표적인 유럽 내 위기국으로 꼽혀왔다. /송병철기자

연금개혁 '수렁'… 탈출구가 안 보인다

이종걸 '기초연금 확대 전제' 양보안도 거부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해결이 난항을 보일 조짐이다. 당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 절충안에 대해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유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며 "5월 6일 본회의 결렬상황과 11일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낼 수 없다는 점"이라며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초연금 강화'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2월 여야 합의를 기초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용고 그른,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발 앞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 역시 이번 제안에 대해 "조율되거나 합의된 의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합의 준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오면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 원내대표의 의견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같은날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서 방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이 원내 대표의 절충안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일단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원내)대표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논의들을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시우기자 siwoo0817@metroseoul.co.kr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불구 필요성 인정은 평가' 등이 적힌 메모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국민통합' 행보 5·18기념식에 참석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묘비를 만져보고 있다. 김 대표는 정부의 계창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표 등은 태극기를 흔들며 따라 불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승춘 보훈처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따라 부르지 않았다. /연합뉴스

9급 공채 성적 사전공개

20~21일 이의제기 접수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8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개인별 성적을 오늘부터 3일 동안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서 사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1일 이틀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전산판독 과정 등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26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사처는 또 이의제기 기간에 온라인으로 답안지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도 시행한다. 또 인사처는 가산점 반영 상황에 대해서도 공개한다. 인사처가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통해 가산점 반영 상황을 조회한 결과 가산점 신청자 가운데 103명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90명은 가산점을 잘못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병형기자

'공무원연금 협상책임'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

조윤선(사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개혁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무수석이 잘 일은 아니고 국회선진화법 상황에서 여야 간 어쩔 수 없는 게임으로 간 것이니까 그것(개혁 무산)이 조 (전) 수석 책임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조 전 수석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안팎에서는 조 전 수석의 사퇴 배경을 두고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에 대한 안 하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G마켓·옥션·11번가 과점피해 방지법 추진

G마켓과 옥션, 그리고 11번가 3대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오픈마켓 시장은 이미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3개 사업자 과점 상태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유사하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 환경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제2의 대규모 유통업과 같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픈마켓은 2014년을 기준으로 거래액이 약 18조원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불공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전무한 상황이다.

법안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자 간 거래 상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과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와 공정거래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정거래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 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정경기자 kiki@

"한국금융 베트남 진출 도와주세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베트남 정부대표단과 면담을 하기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베트남 정부대표단과의 간담에서 임 위원장은 부 반 닌 베트남 경제부총리에게 한국 금융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홍준표·이완구 증거인멸 우려있는데…

檢, 불구속 기소 가닥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연미란기자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회유 정황이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각각 2011년 6월 1억원을, 2013년 4월 3000만원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18일 박찬종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기준에 금품 액수가 다소 미달하더라도 피의자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다 회유로 인해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구속 기소해야 한다"며 "수사 방향을 흐트리는 증거인멸은 사법권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관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구속 기준을 2억원으로 봐왔다는 점을 감안해도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영장 청구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특히 홍 지사의 경우 측근들이 조직적 증거은닉에 가담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상황이다. 검찰은 1억원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씨를 회유했고, 이를 홍 지사가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총리와 측근들도 회유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 보좌관은 성 전 회장과 독대했다고 주장한 이 전 총리의 전 운전기사에게 수차례 접촉해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회유 지시나 묵인 등 증거 인멸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추가 회유 의혹에도 휩싸이게 된 셈이다.

노영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대변인)도 특히 홍 지사에 대해 증거인멸이 위험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노 변호사는 "홍 지사의 경우 증거인멸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현직 지사이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점이 불구속 기소 가닥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홍 지사의 경우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많고 피우 구체적이어서 일반인이었다면 구속기소 됐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광역단체의 공백으로 인한 행정 업무 마비, 이당 인사인 점 등 정치적 이유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봤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무적 판단이 앞서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다.

이 전 총리에 대해선 "운전기사나 선거 사무실 관계자 등이 (성완종-이완구) 독대 사실을 증언했다 하더라도 돈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로 쓰기엔 부족하다"며 "기소돼도 유죄 입증까지 난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고등검찰 부장검사를 지낸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구속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해야 한다"면서도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경우) 증거인멸 혐의가 이미 다 노출돼 있어서 별도의 증거 위조죄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한 구속 기소를 할 정도의 인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상고심 제도 개선안, 조속한 논의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사진)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에 진심한다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18일 서울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국회가 6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하여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종결시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본안사건 수가 3만6000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000건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상고심 심리가 지체되고 심리불속행제도 아래에서 국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패소판결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는 2000년대 초반 이래 계속 제기됐다. 고법 상고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오면서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변회는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찬성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모든 상고 사건을 상사에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또는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은 대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이와 관련이 없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은 물론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까지 도입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 변호사대리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 등 도입하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변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법률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과정에서 더욱 낮고 열린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변이곤기자

이제는 소년이 아닙니다 동해해경관리안전서 소속 의경 대원이 18일 성년의 날을 맞아 동해항교에서 성년의례에 참여해 어른으로 거듭나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로비' 신계륜 "아들 유학자금에 썼다"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 유용 진술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에 썼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검찰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따지며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신 의원은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묻자 "아들 유학자금으로 매달 230만~300만원 정도를 보내는데 아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주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2013년 말 김 이사장에게서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받은 일이 있냐고 질문하자 "상품권이라고 해서 봉투 안을 살펴보지 않고 받았다"며 "연말에 상품권은 특별한 경계심 없이 받고 사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신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홍원기자 hong@

'스포츠 정신'은 어디로

4개 종목 감독·코치 등 9명 '억대 비리' 검거

쇼트트랙 레슬링 등 4개 종목의 코치와 감독 등 9명이 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무더기로 검거됐다.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쇼트트랙, 레슬링, 스키, 씨름 등 4개 종목의 스포츠 비리 관련 감독과 코치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지자체 산하 쇼트트랙 코치는 공무원 업자와 공모하고, 조직폭력배 출신 레슬링협회 임원은 지자체가 선수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코치인 이모(37) 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훈련비 또는 대회 출전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지 않아 모두 8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강릉시청 빙상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김모(54) 씨와 공모해 우수선수 영입비용 명목으로 시청과 담당 체육회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이씨는 빙상장 운영자와 체육용품업자와 짜고 대관료, 물품대금 등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해 강릉시청으로부터 모두 1억1600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이렇게 챙긴 돈 중 1300만여원을 빙상부 지원을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 최씨에게 뇌물로 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최씨가 빙상팀 예산 상당 부분을 영수증이 필요 없는 '보상금' 항목으로 집행했고, 장기간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정기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 광역시 레슬링협회 전무이사 이모(45)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선수들에게 시체육회가 지급하는 '우수선수 관리지원금' 1억51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국체전 참가비를 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선수들에게 통장과 도장을 받고서 이곳에 입금되는 우수선수 관리지원금을 몰래 빼돌렸다.

1963년 이 지역 범죄단체 '광가파'의 행동대장이었던 이씨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경찰의 관리대상 조폭이었음에도 레슬링협회 전무이사직을 맡으면서 내·외부 통제 없이 예산 집행에서 경기운영까지 협회 행정을 좌지우지해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알파인 스키 전 국가대표 이모(34) 씨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전 국가대표 김모(54) 씨는 허위로 해외 전지 훈련비를 청구해 각각 720만여원, 510만여원을 횡령하다 검거됐다.

대한씨름협회 전 사무국장 성모(58) 씨는 최근 2년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경기장 설치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협회에 847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성씨는 또 자신이 유치하지 않은 기업 후원금 4000만원에 대한 성과금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엔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특장소방차 운용능력 경연평가 18일 서울 성동고소방서에서 대원들이 2015 특장소방차 운용능력 경연평가를 하고 있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檢, '의료법 위반' 유디치과 압수수색

검찰이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압수수색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영준 부장검사)는 이달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미란기자

"한국戰 미군포격 민간인사망 국가책임"

법원, 첫 배상판결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요청한 미군의 포격으로 민간인이 숨진 경우 국가에 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씨는 1950년 9월 경북 포항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 포탄에 맞아 숨졌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 후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사격 명령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유진기자

상명대 '전국고 창의예술 실기대회' 개최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는 16일, 17일 이틀에 걸쳐 서울캠퍼스 교내에서 '전국고등학교 창의예술 실기대회'를 개최하였다.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1시까지 개최된 본 실기대회에는 전국 고등학교 남녀 재학생 및 졸업생 2,000여명이 참석하여 예술적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상명대에 따르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실기대회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특선, 입선 등으로 시상이 이루어지며 입상자들에게는 상금 및 상장과 상패가 주어지며 대상, 금상 수상자가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입학할 경우 상명동우장학회장학금이 지급된다.

상명대 문화예술대학의 나지영 학장은 "본 대회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창의예술 능력을 테스트 해보고 이를 통해 입시준비의 기회를 갖게 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본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최치선기자

'알몸 반전시위' 강의석 감독, 악플러 280여명 고소

알몸으로 반전시위를 벌였던 강의석(29) 독립영화 감독이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누리꾼 280여명을 고소했다.

18일 강씨 변호인 측은 "인터넷에 강씨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280여명을 경찰 검찰에 모욕 혐의로 2월 고소했다"며 "이중 인적사항이 확인이 불분명한 수십여건은 취하되 200여건이 남았다"고 밝혔다.

강씨가 고소한 누리꾼들은 주로 그의 양심적 병역 거부 광고 패러디 영상에 대한 비난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이다.

강씨는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피고소인 10여명과 합의하기도 했다. 합의금은 건당 1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변호인 측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얼마나 반성하고 뉘우치는지를 먼저 봤다"며 "욕설 정도와 게시글이 몇 건인지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와 같은 인터넷 댓글 무더기 고소사건 역시 종전과 같이 조사해 악성 댓글인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씨 변호인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다가 비방 댓글을 쓴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홍가혜(27) 여씨 고소 대리인이기도 하다. /이홍동기자

은행장들, 임직원 맘 잡기 나섰다

<Mom>

경단녀 채용·임산부 배려 등 여직원 복지 확대

시중은행장들이 임직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나섰다.

임산부 직원을 위한 배려부터 격의없는 의견 청취와 직원 가족을 위한 문화이벤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지와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임산부 직원이 일하는 영업점 창구에 모성애와 친근감의 상징인 '캥거루 인형'과 임산부를 알리는 '안내팻말'을 보냈다.

이는 임산부 직원을 위한 '예비맘 Care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와 임산부 배려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맘 Care제도'는 지난 2010년 출산 직원에게 미역을 배송하던 '출산직원 격려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료직원과 고객들에게 배려를 요청하고 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조병일 우리은행 직원만족센터 부장은 "예비맘 Care제도는 이광구 은행장 취임 시 강조했던 '직원만족이 곧 고객만족'이라는 경영방침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라며 "이 제도를 통해 은행 창구가 단순히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뛰어 넘어 고객과의 감성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창구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우리은행은 직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공연 프로그램과 잡레지원, 직원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고충심리상담,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직원 부모 80여명을 초청, 제주도를 여행하고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감사편지도 소개하는 '부모님을 위한 孝(효)여행'도 실시했다.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 사항을 듣기도 한다.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은 지난 15일 수도권지역 여성지점장 9명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을 찾았다.

이날 여성지점장들은 어려워진 영업환경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전하고 우수사례 전략 등 은행장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김 행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권 영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여성지점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여성지점장의 감성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전국적으로 36명, 수도권에는 19명의 여성지점장을 배출한 바 있다.

김 행장은 "내년에는 인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성과와 능력위주 인사를 원칙으로 여성지점장이 더욱 많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매년 부서장의 배우자를 초청해 문화 공연 이벤트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서울 샤롯데씨어터에서 부서장 배우자 900여명을 초청해 뮤지컬 '드림걸즈'를 관람했다.

이번 부서장 배우자 초청행사는 조직의 리더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장들과 헌신적인 내조로 큰 힘이 되어 주는 배우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 1시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 부서장 배우자들 맞이한 조 행장은 "가족의 밝은 미래와 은행의 발전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부서장들께서 리더로서 솔선수범하며 직원들을 훌륭히 이끌어 주고 있다"며 "신한의 발전은 이끌어낸 그들의 노력은 곁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내조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 신한만사성(新韓萬事成)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서장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부산은행은 워킹맘을 위한 어린이집을 개원해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성세환 BNK금융회장은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때 업무 효율성도 증가하는 만큼 직원만족을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나가겠다"며 "직원들이 마음 편히 자녀를 맡기고,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시설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ee0209@metroseoul.co.kr

"임신부터 육아까지 OK"

삼성카드 '국민행복카드' 출시

삼성카드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혜택을 담은 '국민행복 삼성카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산부인과 등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연 50만원의 바우처와 함께 여성 고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대형마트나 해외직구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1% 적립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한다.

또 ▲신세계 백화점 5% 할인과 신세계포인트 적립 ▲삼성디지털프라자 포인트 적립 ▲초록마을 5% 할인 혜택 등 제휴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서점·학습지 등 교육 업종 5% 할인 혜택 ▲놀이공원 어린이 직인 혜택 테마 파크와 CGV 할인 ▲외식·베이커리 및 커피업종 10% 할인혜택 등 육아와 여가에 대한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함께 삼성카드는 신규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행복 삼성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축하선물인 베이비키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메트로신문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초화궁길(이선문로2가)

TEL. 02)721-5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조

사업총괄 인 김총희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5851~5

독자센터 02)721-5866

2015년 5월 2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 아시7K8006

보험업계, 해외진출 가속화…저금리 시대 해답될까

지난해 상반기 해외서 870만 달러 적자… 해외 자산도 1% 남짓

저금리 기조 지속과 국내 경쟁 과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가 해외진출로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지에서 성공적인 시장안착 사례가 없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국내 업계 최초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설립했다.

현대해상은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를 중심으로 EU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현지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 2013년 중국 자동차책임보험 시장에 진출해 자동차 임의보험과 국내 진출 법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일반보험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해외사업실을 신설했다. 일반본부와 기획실 등에 흩어져 관리하던 해외사업 업무도 일원화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중국 서서성 서안시에 섬서지점을 개설했다. 이어 중국 손보업계 1위인 중국인민재산보험공사(PICC)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협무교류를 추진 중이다.

동부화재는 지난 1월 베트남 현지 손보사인 PTI(Post & Telecommunication Insurance)의 지분 37.32%를 인수하고 1대주 주자격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현지에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영업력을 늘이고 있다.

잇따른 해외 진출로 현재 국내 보험사의 해외점포는 8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보험사의 해외진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십여년 전부터 해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기대치 이하의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해외 총자산은 44억6025만 달러로 자산 중 해외사업 비중은 생보 0.95%, 손보 1.23%에 불과하다.

이 기간 손보사의 해외점포 당기순손실은 47만 달러를 기록했다. 생보사도 828만 달러 적자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이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업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해외에서 사업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업 핵심역량과 해외사업 관련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함양되야 한다"며 "해외사업 자본 확충을 위한 보험사의 자본조달 방안 다변화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metroseoul.co.kr

<국내보험사 지난해 상반기 해외점포 손익현황>

단위:천 달러, %

구 분		'13.상반기 (A)	'14.상반기 (B)	증감 (C=B-A)	증감률 (C/A)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20,010	△8,280	11,730	적자축소
손해보험		40,174	△477	△40,651	적자전환
전체 당기순이익		20,164	△8,757	△11,407	적자전환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추억을
지나고 있습니까?

첫사랑이 살던 옥수역

첫직장이 있던 충무로역

친구들과 즐거웠던 신촌역

證 '백화점식 서비스'로 고객몰이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연금자산 5조원 돌파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자산의 잔고가 지난 13일 5조원을 돌파해 퇴직연금 3조5866억원, 개인연금 1조4141억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3월 4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거둔 것으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고객에게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사업자 최초의 랩어카운트 서비스인 '글로벌 자산배분 퇴직연금 랩'을 출시했다.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폭넓은 금융시장 전망과 자산배분위원회의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용역량을 강화해 온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공시수익률 증권업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김보배기자

신한금융투자
中企 해외진출 지원 성장사다리펀드 등록

신한금융투자와 프레시스캐피탈파트너스가 성장사다리펀드의 'K-Growth 글로벌펀드'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을 마치고 등록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유망한 벤처·중소기업 및 성장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발굴해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출자해 조성한 펀드다.

K-Growth 글로벌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 개념이다. 기술력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성됐다.

이번 펀드는 조기 성장사다리펀드에 제안한 총 약정금액 800억을 뛰어 넘은 규모로 모집됐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외에도 과거 신한금융투자 및 프레시스캐피탈이 운용하는 PEF에 출자했던 주요 투자자(LP)들이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운용실적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보배기자

[여의도 산책]

수요 증권사들이 은행과 증권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복합점포'를 앞다퉈 열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거래가 늘어나자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 모아 파는 금융 백화점식 서비스로 고객 끌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복합점포란 은행·증권 등 타 업권 간 칸막이를 없애 대부분의 금융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점포를 말한다. 은행 직원과 증권사 직원의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예금 가입부터 주식투자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금융지주 차원에서는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은행 입장에선 예금·대출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워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고 증권사는 은행의 다양한 지점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맞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예금·주식 등 한곳서 처리 금융 복합점포 개설 러시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 기대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투자증권은 지난달 서울 청담PB센터에 이어 이달 12일에도 복합점포 2호점인 '일산 PB센터'를 개설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 PB센터는 KB국민은행과 KB투자증권이 공간을 공유하는 융합형 복합점포다. 지난달 말 문을 연 '청담 PB센터'에 이어 두 번째다. KB투자증권은 일산 PB센터를 통해 경기 북부의 중심지인 일산지역 고객들에게 KB국민은행과 함께 원스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복합점포를 계속 확대해 그룹 내 계열사와 함께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보다 먼저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은 지난 1월 서울 광화문에 최초의 복합점포인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를 연 데 이어 최근 경기도 분당에 '분당 NH금융플러스센터'를 열었다. '분당 NH금융플러스센터'는 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이 경기도에 처음으로 개점한 복합점포다. 은행 고객은 물론이고 NH투자증권에 방문한 일반 고객에게 공동 상담공간을 활용해 토탈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KB투자증권은 지난 12일 신설된 복합점포 2호점인 '일산 PB센터'를 개설했다. /KB투자증권 제공

이대호 센터장은 "대도시 금융에 강한 NH투자증권의 장점과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는 농협은행이 결합한 복합점포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IBK고객센터 1층에 은행과 증권을 결합한 복합점포인 'IBK 한남동 WM센터'를 개점했다.

/김문호기자 kim@metroseoul.co.kr

대우조선해양, 1Q 어닝쇼크… 하반기도 '먹구름'

해양 이익 감소·세무조사 추징금 등 잇단 악재 단기 실적 개선 '암울' — 목표주가 하향 조정

대우조선해양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적자가 거론돼온 덕에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전날대비 3.93%(700원) 내린 1만7100원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2거래일을 제외하고 0~1%대 하락을 거듭해온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5일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4조4861억원, 영업손실 433억원, 당기순손실 17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개별기준으로는 매출액 4조423억원, 영업손실 804억원, 152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대우조선해양이 영업손실을 낸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쇼크'로 적자를 기록한 때에도 흑자를 내며 건재함을 과시한 바 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일회성 손실과 해양부문의 마진 악화로 어닝쇼크설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었다.

우선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중 1173억원이 판관비용으로 지출됐다. 통상임금 관련 비용으로도 450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4분기에도 103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 충당금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2분기 연속 대규모 적립이 발생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해양부문 매출총이익률(GPM)이 전분기 9.9%에서 올해 1분기 4.6%로 떨어졌다. 전분기 일회성 이익과 올해 1분기 일회성 손실을 뺀 정상GPM도 7.5%에서 5.6%로 하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해양 기자재 구매 등 재료비 원가비중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GPM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말 정기 세무조사에서 3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줬다.

대우조선해양의 1분기 어닝쇼크에도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실망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라며 "최근 한 달간 11% 하락 조정됐고 올해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역대 최저인 0.68배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모습.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프로젝트의 원가비중이 커진 것이 올해 1분기 어닝쇼크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단시간 내에 실적 개선을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이재원 연구원은 "올해 2분기에는 일회성 손실이 제거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라면서도 "연간실적은 2016년 LNG선 매출비중 확대에 따른 이익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기존 2만7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내려잡았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현재 해양매출 감소대비 상선매출 증가 속도가 더뎌 매출액은 2016년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기존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분기부터 정성립 신임 사장이 지휘한다. 경영진 교체에 앞서 전임자 사장의 실적부진 요인을 회계에 선반영하는 '빅배스'가 단행될 전망이어서 2분기 실적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목표가를 기존 2만40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내리고 "2Q에는 장기 외상매출채권 충당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양부문에서 낮은 수익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CEO 교체로 적자 공사에 대한 공사손실충당금을 쌓을 경우 다시 한 번 적자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보배기자 bobae@

김창근 'SKT-SKB 편입' 리더십 위기

편입안 처리 후 SKB 주가 연일 하락
실탄부족에 합병안 무산 가능성 커져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추진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실상 합병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모·자회사 편입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처리된 직후부터 SK브로드밴드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SK브로드밴드 주주의 주식을 일정 비율에 따라 SK텔레콤 자사주와 교환하거나 한 주당 4645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량(全量)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교환을 원하지 않는 SK브로드밴드 주주는 오는 26일까지 1주당 4645원에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교부할 SK텔레콤 자사주는 약 247만주로 교환가 기준 총 7056억원 정도이다. SK텔레콤은 교환을 원치 않는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4000억원을 잡고 있다. 이용환 SK텔레콤 재무관리실장은 올해 1분기 실적발표 회에서 "(일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규모는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4000억원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진행 중이다.

반대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 액면가 보다 주가가 올라갈 경우의 수를 대비해 주가와 추이를 지켜보고 신청 마지막날 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교환건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자금지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등의 법리적 제한이 있어 현금 압박 등으로 편입이 무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조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안이 무산될 경우 이번 안을 승인한 김 의장도 실패에 따른 경영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SK브로드밴드 이날 종가는 개장 전일에 비해 0.38% 내린 4235원에 마감됐다. SK브로드밴드 주가는 지난달 27일 4870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하향세로 돌아서 지난 4일 4680원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4645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 편입을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 발표(6일)한 이후인 8일부터는 SK브로드밴드 주가가 4200~4300원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주들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SK브로드밴드의 발행주식 총수는 2억9595만9087주다. 이 중 SK텔레콤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의 50.56%다. 최신원 SKC회장 외 0.02% 등 우호지분은 모두 1억4970억9630주로 전체의 50.58%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은 이를 제외한 1억4624만9457주로 모두 행사된다면 SK브로드밴드는 최대 6793억2872만7765원을 기존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SK브로드밴드가 실탄이 없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의 지난 3월 말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560억39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말(204조6200만원)보다 356억77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매출채권과 기타채권(263억8000만원) 등을 정산해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구책에도 SK브로드밴드가 빚을 내지 않고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대응할 능력이 없는 상태다.

모회사가 될 SK텔레콤의 현금 사정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지난 3월 말 현재 SK텔레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7404억2000만원이다. 이는 작년 12월 말 보다 11.27%(940억900만원) 감소했다.

SK텔레콤 측은 4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자금을 SK브로드밴드에 대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현재 보유 현금의 절반 이상을 SK브로드밴드에 빌려주는 것이 법리적 해석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다는 게 증권전문가의 관측이다. 각종 투자계획을 고려할 때 합병이 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배임죄 혐의를 질수 있기 때문이다.

/송정훈기자 ss@metroseoul.co.kr

LCD 패널 가격 ↓… 디스플레이 업체 '한숨'

스마트폰용 연말 손익분기점
TV용 1분기 정점 찍고 하락세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업체들의 수익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스마트폰과 TV에 들어가는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의 하락이 전망되면서다.

18일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소형 디스플레이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인치 고해상도(풀HD) 스마트폰 패널의 경우 올해 말 쯤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것으로 디스플레이서치는 내다봤다. 5인치 풀HD 패널은 지난해보다 출하량이 34% 증가하고, 생산원가 하락은 18%에 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 직원이 모듈라인에서 LCD 패널을 검사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세를 보이던 TV용 LCD 패널 가격도 올해 1분기에 정점을 찍은 뒤 2분기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분기 기준 40인치 풀HD LCD 패널은 전분기 대비 가격 변동이 없었고 2분기에는 5달러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3분기 6달러, 4분기 2달러가량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40인치 초고해상도(UHD) LCD 패널은 1분기 2달러, 2분기 4달러, 3분기 6달러, 4분기 2달러 가량 가격 하락이 예상됐다.

업계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TV용 패널 모두 하이엔드 제품의 파이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율개선 등을 통한 원가 절감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한준기자 hjc@

"모디 총리, 만납시다"

정몽구 권오준 구본준 등 재계총수 면담 잇따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난다. 중국 못지 않게 잠재력이 큰 12억 인구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재계는 1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인도 CEO포럼에서 모디 총리와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포럼을 전후로 모디 총리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도 자동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날 모디 총리와 1대 1 면담 자리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모디 총리와 단독 면담을 가진다.

한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8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7년 국내 기업 처음으로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뉴델리와 푸네 두 곳에서 대규모 가전공장을 가동 중인 LG전자의 구 부회장은 현지 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허진수 부회장 "지속 성장 위해 강한 조직 돼야"

GS칼텍스 창립 48주년 기념식

"현재 경영환경은 세계적 경기침체와 경쟁이 심화되는 국내외 시장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강한 조직이 돼야 한다."

허진수(사진) GS칼텍스 부회장은 18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창립 4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허 부회장은 "창립 이래 지금껏 GS칼텍스는 두 번의 오일쇼크와 IMF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미래를 개척했다"며 "우리의 역량을 냉철히 분석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허 부회장은 ▲수익성 향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변화 혁신 활동 지속 실천과 성과 창출 ▲기본 다지기와 약속같은 실천 ▲안전 경영과 노사화합 등 네 가지 사항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허 부회장은 "나부터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야 하며 회사와 고객, 협력사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회사조직가치인 'GS칼텍스웨이'를 탁월하게 실천해 온 모범 선발된 모범사원과 장기근속자, 안전관경진대회 수상자 등에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정용기기자 jyeol@

LG전자 '스마트 모니터 활용법' 영상 공개

LG전자가 자사 모니터의 특징과 활용법을 소개한 영상을 공개했다.

LG전자는 신제품인 미러링 모니터(모델명 27MT77W)와 블루투스 모니터(모델명 24MT57B) 등 스마트 모니터 2종의 활용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일상 속에서 LG 스마트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공감을 얻기 위해 기획됐다. 미러링 모니터와 블루투스 모니터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됐으며 '무선으로 즐기는 새로운 모니터 생활'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소비자들이 모니터가 필요한 상황을 보다 친근하고 독특한 활용법으로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양성운기자

2조 번 벤츠코리아 "세금 3억 못낸다"

국세청 상대 '임직원車 부가세 취소소송' 3심 진행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대표이사 브리타 제에거)가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 3억여원을 내지 않겠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2심에선 항소 기각됐다. 해당 사건은 양측 상고로 3심이 진행 중이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제조사인 다임러 AG로부터 수입한 벤츠차량 중 119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시승·대차 용도로 사용했다.

또 임직원 업무용 매니지먼트 차량 62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았다가 그 중 27대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1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승용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딜러의 고객을 위해 사용한 것이고 △매니지먼트 차량은 임직원들의 대리점 방문이나 출장 등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사용됐기 때문에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급가액을 벤츠코리아가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공식딜러에게 공급하는 가액으로 한 과세자료(21억여원)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벤츠코리아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28억여원의 부가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한 벤츠코리아는 "판매 차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시승용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과세기간 내로 판매했으므로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시승차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영업용에 해당하지만, 임직원용 차량은 자가공급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24억여원의 부가세 부과를 취소하고 3억5000여만원만 남겨뒀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부 부장판사 함상훈)는 △고가의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중 상당수는 구매의사를 결정하기 전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승을 원하고 △벤츠코리아와 공식딜러들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차량 중 일부를 시승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승용 차량은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촉진에 기여하고 있어 영업에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승용 차량에 대해 재판부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판매업자를 비롯한 과세사업자가 시승이나 전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피고도 공식딜러가 고객에게 시승용으로 제공하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시승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영일기자 someon@metroseoul.co.kr

브리타 제에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 / 벤츠코리아 제공

2014년 기준

	수입차등록대수	공식 정비센터	정비센터 1개소당 자동차등록대수
벤츠	3만5213대	35개	1006대
BMW	4만174대	55개	730대

벤츠 'A/S 불편' 이유 있었다

판매량 40% 늘었지만 정비센터 2곳 추가 그쳐

메르세데스벤츠(대표 브리타 제에거) 차량의 판매가 지난해 대비 40% 이상 늘어났지만 공식서비스센터는 단 2곳을 늘려 서비스 받기가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 시 발생하는 공임비 역시 국내 수입차 중 가장 높았다.

1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수입 승용차 등록대수를 분석한 결과 벤츠 차량의 지난해 등록대수는 3만5213대로 전년(2만4780대) 대비 42.1% 급증했다. 수입차 점유율 역시 15.53%에서 17.53%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새로 생긴 서비스센터는 단 두 곳. 현재 벤츠의 공식 서비스센터는 전국 35개뿐이다. 2014년 38개소까지 서비스센터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판매량 증가로 인해 벤츠의 정비센터 1개소 당 차량 등록대수는 오히려 늘었다. 2013년 서비스센터 1개소가 감당해야 하는 차량은 연간 750대였으나 2014년에는 1006대로 나타났다. 서비스센터 1개소 당 감당해야 하는 차량이 많을 경우 사고수리를 받기 위한 예약·대기 시간 등이 늘어난다.

벤츠 서비스센터의 경우 BMW 서비스센터보다 1개소가 맡아야하는 차량이 약260대 많다. 같은 기간 4만174대가 팔린 BMW의 경우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가 총 55개다. 서비스센터 1개소에 할당된 차량은 730대 수준이다.

시간당 공임비 역시 수입차 중 벤츠가 가장 높다. 자동차 수리비는 부품비와 공임비로 구성된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가 부품비를 업체별로 공개 의무화한 뒤 부품의 가격은 규정화됐으나 여전히 공임비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어 사실상 공임비가 수리비를 결정한다.

벤츠 서비스센터는 차종과 지역별로 공임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작년 가장 많이 팔린 E220 CDI 모델의 시간 당 공임비는 서울 강남지역이 7만6000원, 그 외 서울 강북·지방의 경우 6만8000원 안팎이다.

벤츠 코리아 논현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강남의 서비스센터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인해 공임비가 더 비싸다"고 해명했으나 벤츠코리아는 현재 센터별 수리공의 근속연수 등 숙련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소리기자 Ssori@

벤츠 '묻지마' 재고떨이… 정부 칼 꺼내나

'유로6' 실시 앞두고 할인 경쟁 정부 "널뛰기 영업 예의주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대표 브리타 제에거)가 오는 9월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유로6 실시를 앞두고 무원칙 재고떨이로 자동차시장 가격을 흔들고 있다.

최근 5%대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판매한 벤츠코리아의 차종 대부분이 이 규제에 부합함에도 마치 재고떨이를 하듯이 가격할인 경쟁을 벌인 것이다. 때문에 환경규제변경 등 마땅한 이유 없이 판매실적 제고를 위한 벤츠의 가격할인 영업행태가 기존에 차를 구입한 고객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당국은 수입차의 널뛰기 가격 영업행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제재안 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중인 벤츠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등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은 이미 유로 6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유로 6이 국내에 도입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다는 게 벤츠코리아의 설명이다.

유로6은 기존 유로5 보다 입자상물질(PM)은 50%, 질소산화물(NOx)은 80% 가량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규제가 적용되기 전 수입차업계는 유로 5 기준에 충족하는 차량 재고를 할인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벤츠코리아의 경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 대부분이 새로운 환경규제 기준에 부합함에도 시장에서 할인 경쟁을 벌여 딜러사들의 과당경쟁만 낳았다. 벤츠가 지난 1~4월 3~5% 할인을 실시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그 결과 벤츠코리아의 판매량은 고공상승했다.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4월 벤츠 판매량은 4136대로 전달(3639대) 대비 13.7% 증가했다. 이는 수입차 업계 1위다.

이에 전문가들은 벤츠코리아가 관련 딜러사의 가격을 전혀 컨트롤 못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소비자의 불신을 조래하는 시장혼란을 부추긴 벤츠코리아 측에 대한 정부제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벤츠코리아의 경우) 할인을 등락 폭이 심해 자동차 시장을 흔들고 소비자의 불신을 높였다"며 "벤츠 지사가 판매 딜러사들의 가격을 어느정도 통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 등 수입차 가격거품을 낮추는 실질적 규제안도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차 가격이 널뛰기를 반복한다면 가격담합이나 불공정거래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며 "대체부품 인증제 등 수입차 가격의 거품을 빼는 규제안과 함께 벤츠코리아 같이 시장의 혼란을 조래하는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ssjh@

현대차 'IT총괄' LG맨 떠나자 삼성맨 영입

차량IT개발 센터장에 황승호 부사장 임명

현대자동차그룹이 차량IT개발센터장 자리에 삼성전자 부사장을 지낸 황승호 부사장(사진)을 임명했다. LG전자 부사장 출신인 기존의 곽우영 센터장은 현직에서 물러나 자문으로 위촉됐다.

황 부사장은 지난해 2월 현대차에 영입돼 텔레매틱스 개발과 서비스 부문을 담당해왔다. 이번 인사를 통해 황 부사장은 차량IT서비스사업에서 차량IT개발센터까지 담당한다. 곽 전 부사장은 LG전자에서 전자기술원장(부사장)과 MC연구 소장 등을 역임했다. 초콜릿폰 프라다폰 등을 개발한 주역이다. 현대차는 2013년 차량IT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곽 전 부사장을 영입했다. 곽 전 부사장은 현대차에 입사한 이후 현대차의 블루링크, 기아차의 유보 등의 차량텔레매틱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대차는 이번 인사에 대해 "서비스와 개발로 나뉘어있던 차량 IT 관련 부문을 일원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곽 전 부사장 역시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이통사의 두 얼굴… 데이터 요금제, 알고보니 생색용

급증하는 트래픽… 인하 아닌 요즘 제값 받겠단 꼼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4G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2012년 부터 최근 3월까지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했고 앞으로도 이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 와중에 출시한 이동사들의 데이터 요금제는 급증하는 데이터 이용 수요의 제 값을 받기 위한 '착시현상'을 보이는 꼼수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실제로 카카오톡과 라인 등 사용자의 급증으로 문자를 무료 내지는 별 수백통 준다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월정액으로 무제한 통화도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 상당부분 투입된 정부의 IT인프라가 거의 모두 구축된 시점에서 더이상 인프라 구축 투자를 핑계로 기본료를 과도하게 받는 것 또한 수익극대화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음성통화는 보이스톡이나 스카이프와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로 문자는 카카오톡·라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 중심 서비스 이용 변화와 함께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데이터 이용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데이터 제한을 두고 마치 통신료 대폭 인하 같이 보이는 통신사의 행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데이터 트래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트래픽 수지는 2만9748 테라바이트(TB)에서 매월 증가해 올해 3월에는 13만8121TB까지 기록됐다. 전체 트래픽을 매월 가입자당 이용하는 트래픽으로 계산했을 때 2012년 1월 470메가바이트(MB)에 불과했던 이용량이 올해 3월에 2302MB로 증가했다. 3년만에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내 LTE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012년 1월 1.5기가바이트(GB · 1515MB)에서 올해 3월에 3.4GB(3365MB)로 급증했다.

이런 트래픽 증가 속도라면 현가입자(5235만여명)를 기준으로 1년 뒤에는 가입자 당 이용 트래픽이 582MB 증가해 2882MB(2.8GB)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뒤, 5년 뒤의 가입자당 트래픽 사용량 예상 수치를 계산한 결과 각각 4GB, 5.2GB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동통신 가입자 한명 꼴로 2.3GB 사용량과 대조해보면 2배 이상에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 속에서 통신사들이 잇따라 내놓은 데이터 정액제 요금은 현재보다 데이터를 다소 늘려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 알으로 데이터가 늘어날 수요를 미리 알고서도 고객들에게 요금을 과거와 현재 데이터 사용기준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고사양 게임, 음원 스트리밍, 고화질 동영상 등으로 데이터 이용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음성통화가 줄고 데이터 이용이 늘어나는 패턴 변화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중심요금제는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에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출시는 데이터 제공 서비스에 대해 제 값을 받고자 하는 취지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데이터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2G와 3G의 이용자들을 LTE요금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동시에 음성통화가 아닌 데이터 사용 요금제으로 중심축을 옮겨 통신 요금을 '톡톡히' 챙기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비스가 구체화 되진 않았지만 이동사들이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물인터넷과 플랫폼 사업도 장기적으로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 덧붙였다.

/정번경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모델들이 유플러스 티비링크 출시 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U+ '티비링크' 출시 기념 온라인 이벤트

퀴즈 풀고 정답 맞추면 G pad 등 푸짐한 선물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유플러스 티비링크(U+ tvLINK)" 출시를 기념해 온라인 경품 이벤트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출시된 U+ tvLINK는 TV나 모니터 등에 연결해 셋탑박스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대형 화면에서 볼 수 있는 TV용 영상 어댑터이다.

U+ tvLINK 전용 사이트(http://uplustvlink.co.kr)에서 열리는 이번 온라인 경품 이벤트에는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어 정답을 맞추는 고객을 대상으로 LG G pad, U+ tvLINK, 포켓포토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릴레이 퀴즈 이벤트는 오는 6월까지 순차적으로 계속된다.

이와 함께 고객이 U+ tvLINK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도 활동을 시작한다. 1차로 선발된 30명의 체험단은 2주에 걸쳐 스mart 미드를 대화면에서 감상 ▲폰 to TV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사용 안드로이드 모드 등의 U+ tvLINK 3가지 첨단기능을 경험한 뒤 사용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판매가는 6만9600원이며 24개월간 분납하면 매월 2900원을 내면 된다. U+ tvLINK 단말은 전국 주요 131개 매장에서 판매되며 온라인의 경우 유플러스 앱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illegible]기자

대우조선, 1억3000만불 원유운반선 2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1억3000만 달러 규모의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선사 안젤리쿠시스 그룹 내 마란 탱커스 매니지먼트 사로부터 15만6000톤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동 선주사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따낸 이후 한 달여 만에 수주한 신규 계약 이다.

사측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인 수에즈막스(13만~15만DWT(재화중량톤수))급이다.

길이 274m, 폭 48m, 깊이 23.7m 규모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17년 초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15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계약 식에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그리스 선박왕' 존 안젤리쿠시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2004년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2005년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 건조 계약 등을 통해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1994년 첫 계약 이후 이번 계약 포함 총 82척의 선박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대우 망갈리아 조선소 건조 선박 포함)한 바 있다.

현재 옥포조선소와 망갈리아 조선소에서는 26척의 안젤리쿠시스 그룹 측 선박이 건조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LNG운반선 6척과 VLCC 4척 등 총 12척, 17억2000만 달러 상당의 상선을 수주했다.

/이정필기자 roman@

15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오른쪽)과 사주의 딸인 마리아 안젤리쿠시스씨가 선박 건조 계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 제공

'천송이 코트' 결제 여전히 불편하다

액티브엑스 대신 'exe' 설치… 불편함 그대로
간편결제 사고보상 등 책임 규정은 없어

중국인 유학생 루루(23·가명)씨는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기 위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다 결국 구매를 포기했다. 30만원 이하는 간편결제가 가능하지만 3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하려 하자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Active X'와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결제만으로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천송이 코트' 발언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몰 구매는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인증서 폐지·액티브엑스 이용환경 개선·간편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규제개선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지만 국내 모든 쇼핑몰에 간편결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안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또 국내 카드를 이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대다수가 30만원이 넘는 물건을 살 때 자동응답서비스(ARS)를 비롯한 추가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미래창조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과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규제개선 주요성과는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엑스 이용환경 개선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회원가입부터 결제까지 번거로운 이용약관 동의·카드정보 입력·액티브엑스 설치·주문까지 거치던 복잡한 전자상거래가 약관동의·카드정보입력·주문으로 간소화돼 온라인쇼핑몰에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액티브엑스를 퇴출하겠다며 'exe' 실행파일을 통해 보안모듈을 설치하도록 해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환경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는 시각이 다수다.

간편결제의 경우 회사마다 시스템은 조금씩 다르지만 간편결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만 누르면 결제가 끝나는 구조다. 전자결제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를 불러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30만원 이상 초과 결제에 대해서는 간편결제라도 ARS 등의 전화나 문자와 같은 추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카드결제는 당연하고 결제 방식을 단순화시킨 간편결제도 30만원 이상의 경우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있어 국내외 소비자가 국내 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 제품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간편결제의 경우 보안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베이코리아의 '스마일페이'를 비롯해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 SK플래닛의 '시럽페이' 등의 간편결제가 속속 선보이고 있지만 금융사고 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 김승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액티브엑스 대신 도입된 'exe' 설치방식을 여전히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들은 안전하다고만 얘기할 뿐 어디에서도 사고배상 책임과 관련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며 "간편결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의 보안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미·김성현기자 21cent@

롯데마트 '여름 원피스 균일가 대전' 19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여름 원피스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27일까지 여름 원피스를 시중 브랜드 상품 대비 30% 가량 저렴한 1만5900원(아동), 2만9900원(성인)에 판매하는 '여름 원피스 대전'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롯데 한식뷔페 '별미가' 론칭 초읽기

70년대 복고풍 인테리어 지역 대표 제철 메뉴로

유통·식품 대기업들의 한식뷔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후발주자인 롯데 '별미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대표 노일식)는 별미가의 올 하반기 오픈을 앞두고 메뉴개발과 BI(brand identity)작업이 한창이다. 전국 각 지역별 별미를 대표 메뉴로 한 제철 음식을 선보이며 차별화를 둘 계획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별미가라는 브랜드명답게 현재 전국의 맛집을 돌며 손맛을 전수 받고 있다"며 "효소를 메뉴에 사용해 건강한 음식이라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매장 인테리어는 오픈키친 형태를 도입하고 1970년대 느낌의 복고풍으로 꾸미기로 했다. 가격은 경쟁사 CJ푸드빌의 '계절밥상'(점심 1만3900원, 저녁 2만2900원), 이랜드 '자연별곡'(점심 1만2900원, 저녁 1만9900원) 등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별미가 1호점 위치로는 롯데아울렛이 들어선 고양종합터미널과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의 백화점 아웃렛 등 유통매장을 적극 활용해 매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웰빙트렌드가 삶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은 만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햄버거·패밀리레스토랑 등 서양식 위주의 외식사업에서 한식까지 아우르는 국내 대표 종합 외식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CJ푸드빌은 계절밥상 매장을 3곳에서 현재 15개까지 늘렸다. 이랜드도 현재 33개의 자연별곡 매장을 운영중으로 올해 3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웰빙 트렌드에 높아진 한식뷔페의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식트렌드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현재 한식뷔페가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곧 레드오션이 될 수 있다"며 "너도나도 한식뷔페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

11번가, 80인치 초대형 디스플레이 '반값'

SK플래닛(사장 서진우) 11번가가 초대형 디스플레이 'TG&CO 80인치 빅 디스플레이(BIG Display) 80'을 타사 동일 사양 제품 가격 대비 반값 수준인 449만원에 단독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TG&CO 80인치 빅 디스플레이 80'은 화면 대각선 길이가 203cm로 40인치 TV 4대를 합쳐놓은 것과 맞먹는 초대형 크기를 자랑한다. 색 표현력과 선명도가 뛰어난 풀HD화질로 집에서도 대형 극장 스크린으로 영화·드라마·스포츠를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11번가는 31일까지 제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필립스 사운드바'와 'HDMI 케이블'을 무료 증정한다. 또 포토 리뷰 작성 시 추첨을 통해 TG&CO 40인치 TV를 나눠준다. 2년간 무상 AS 서비스와 국내 주요 신용카드 결제 시 2% 할인 및 최대 12개월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티몬, 지역서비스 미사용 티켓 100% 환불

기간 지나면 환급금으로 맛집·뷰티 등 사용 가능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티몬이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서비스 쿠폰에 대해 적립금 형태로 100% 자동 환불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소셜커머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사용 쿠폰의 경우 70%만을 적립금 형태로 환불하고 있다.

티몬은 고객중심 서비스 경제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업계 최초 100% 전액을 적립금으로 자동 환불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티몬 이용자들은 혹시나 깜빡 잊고 유효기간 내에 이용을 못하더라도 결제한 금액은 자동 전액보존 받을 수 있게 됐다.

변경된 정책은 이날부터 구입하는 티몬의 지역상품 중 △맛집·카페 △헤어·뷰티 △스킨·바디케어 △운동 △생활서비스 등의 카테고리에 적용된다. 환불이 이뤄지는 시기는 각 상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7일 후다.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품을 구매했던 티몬 아이디로 자동 적립된다.

/정은미기자 21cent@

우리 가족 여름나기~ 초록보약 매실~ 농협유통 대표 조완조 은 18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전남 광양지역에서 올해 첫 수확된 매실을 선보였다. 농협유통은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매실의 본격 출하가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매실 주산지인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에서 수확한 최고 품질의 매실을 대량으로 확보해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농협유통 제공

오리온 초코파이 情 통했나

분기 매출 첫 1000억 돌파
작년 전세계 21억개 팔려

오리온(사장 강원기)은 초코파이의 국내외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단일 브랜드로 한 분기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기는 초코파이가 국내 제과업계 최초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1974년 출시된 오리온 초코파이는 출시 40주년인 지난해 한 해에만 전세계에서 21억개가 팔리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초기엔 보따리상을 통해 수출됐으나 1993년 오리온이 중국 북경사무소를 개설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시작됐으며 이후 1997년 북경에 생산공장을 세웠다.

1997년에는 베이징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현지 마케팅에 들어갔다. 국내에선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인 정(情)을 활용하고 중국에선 '인(仁)'을 내세우고 중국인이 좋아하는 붉은색으로 포장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현지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베트남에선 베트남어로 정을 의미하는 'Tình'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현지화에 성공했다.

오리온의 철저한 현지화 마케팅 덕분에 초코파이의 국내외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오리온 초코파이의 연간 매출은 2012년 3440억원, 2013년 3800억원, 지난해 3830억원을 기록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철저한 현지화 마케팅으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초코파이가 제과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병희기자 tmv0604@metroseoul.co.kr

제일모직, 女축구팀 공식 단복 제작

제일모직(대표 윤주화)의 빈폴레이디스와 남성복 갤럭시가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2015 캐나다 여자월드컵에 출전하는 월드컵 대표팀의 선수단을 비롯해 감독, 코치 등 총 32명이 착용할 공식 단복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일모직은 12년만에 여자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는 대표팀을 위해 3개월에 걸쳐 개인별 체촌과 제작을 진행, 공식 단복을 제작했다. 감독, 코치진의 경우 남성복 갤럭시에서 단복을 제작해 대표팀 전원이 동일성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빈폴레이디스가 선수단에 제공하는 정장 단복은 '클래식 여성 스포츠'를 콘셉트로 격식은 물론 활동적인 선수들의 성향에 맞도록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했다. 총 7개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깔끔한 아이보리 컬러의 재킷과 같은 계열의 바지, 블랙컬러의 스트라이프가 가미된 브이넥 화이트 니트를 기본으로 블루·네이비 컬러의 도트 문양 스카프, 블랙 컬러의 슬립온 슈즈와 라이트블루 컬러의 벨트로 포인트를 줄 예정이다.

쿠론, 사물인터넷 핸드백 출시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대표 박동문)의 쿠론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백 1.0' 글림'을 7월에 선보인다.

스마트백 1.0' 글림은 NFC(근거리 무선 통신)기술과 블루투스 기술을 적용해 가방과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연결하고, 스마트폰의 상태를 가방 겉면에 부착된 쿠론의 시각 엠블럼에 불빛으로 나타내주는 기능을 한다.

스마트폰을 내부의 포켓에 넣으면 자동으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연결되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전화·문자메세지·SNS의 착신 상태 정보를 받아 쿠론의 시그니처 엠블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LED를 각각 세 가지 보석 컬러로 반짝이게 한다. 스마트백 1.0' 글림은 뉴 스테파니와 쿼트레 쇼퍼백과 클러치에 적용될 예정이다.

컬럼비아스포츠웨어, 심한보 대표 선임

컬럼비아스포츠웨어컴퍼니가 한국지사인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의 신임 대표이사에 심한보 대표(53·사진)를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대표는 다양한 글로벌 스포츠 소비재 브랜드에서 경력을 쌓은 25년 이상의 재무 분야 전문가다. 특히 약 10년 간 테일러메이드 코리아의 글로벌 부사장 겸 한국 시장을 책임하며 의류, 신발 및 용품 등을 아우르는 4개 골프 브랜드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전에는 아디다스코리아의 최고 재무 관리자(CFO)로서 약 5년 간 재직한 바 있다.

심 대표는 한국에서 전개 중인 브랜드의 영업·유통·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여하고 경영 전반을 책임질 예정이다.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는 현재 약 250개 이상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브랜드들의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백화점 고집하던 패션 "이젠 온라인으로"

텡커스·BNX 티몬 전용 상품 이달부터 판매

패션업계가 온라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데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 온라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18일 아비스타에 따르면 이달부터 소셜커머스 티몬의 전용 상품을 구성해 판매를 시작했다. 백화점 중심의 오프라인 유통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첫 진출한 것이다.

현재 티몬에서는 단독 기획한 텡커스·BNX 등의 브랜드 봄·여름 신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재킷 등 가을·겨울 상품도 티몬 전용으로 기획 중이다. 아비스타는 앞서 티몬과 온라인 유통과 함께 공동제품 개발·판매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재 G마켓·오픈마켓 등 다른 기존 온라인 채널과도 업무협약 관련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LF는 이달 초 패션 전문 온라인 기업 트라이씨클을 인수했다. 해당 온라인 기업은 하프클럽닷컴을 비롯해 오가게, 유아동몰 보리보리, 스포츠·아웃도어전문몰 아웃도어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프클럽닷컴의 경우 1700여 개 브랜드가 입점돼 있고 가입회원 수만 400만 명에 달한다. LF는 이번 인수를 통해 가격별로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LF몰은 고가 상품 위주로, 트라이씨클은 중저가 다사 브랜드를 판매하는 온라인 몰로 각각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LS네트웍스도 올해 공식 온라인몰 'LSN몰'을 열었다. 개인 사업자들이 자사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적은 있으나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로스펙스·스케쳐스·몽벨·잭울프스킨·자전거 전문숍 등이 입점했다. 해당 온라인 몰을 통해 신제품·한정상품과 다양한 최저가 상품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는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이 부진한 상황에서 온라인 채널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또 인건비·매장 유지비 등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이 정체되면서 오프라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온라인 시장이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백화점의 경우 판매 가격의 50%가 수수료와 인테리어비·인건비 등으로 나가는데 온라인은 수수료 자체도 낮고 물류 비용도 적어 같은 비용에 제품을 판다고 하면 이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의류 관련 상품 거래액은 7조 3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김수정기자 ksj2158

20대 청춘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행지 5선

20대에는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쌓기 위한 도전이 거듭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의 시기에 여행은 인생의 견문을 넓혀주는 좋은 기회이다. 20대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도전이자 열정의 표출이기도 하다.

전세계 여행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20대 청춘의 마음을 사로잡을 유럽 여행지 5곳을 선정했다.

◆ 이비자, 스페인

스페인 발레아릭 군도에 위치해 있는 이비자 섬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파티 여행지 중 하나다.

파차(Pacha), 스페이스(Space), 프리빌리지(Privilege)와 같은 파티를 사랑하는 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클럽에는 세계 최강의 DJ들이 포진해 있어 전 세계의 파티 러버들로 북적거린다.

광란의 파티 외에도 북적한 산안토니오와 이비자 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섬의 한편에는 조용한 장소가 존재한다. 라스 살리나스 국립공원에서 해지 탐험이 가능하여 섬 곳곳의 스페인 문화 유산까지 관광할 수 있어 다채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온화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이비자는 최고급 숙소와 개인요트를 정박할 장소가 많아 해외 톱스타들의 휴양지로도 사랑 받고 있다.

◆ 마드리드,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하기 전 반드시 씨에스타(낮잠)를 가지는 게 좋다. 마드리드에서는 파티가 끝나는 법이 없고 주점과 클럽이 이른 아침까지 문을 닫지 않기 때문이다. 마드리드에서 가장 캐서너블한 구역으로 알려진 말라사냐(Malasaña)에는 다양한 기념품을 구입할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즐비해 있다.

또한 현대 미술관 콘데두케(Conde Duque)를 포함한 수많은 갤러리 및 찬란한 스트리트 아트 등 볼거리가 풍성하여 흥기 넘치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몬트리올, 캐나다

캐나다의 문화수도로 알려진 몬트리올은 북미의 현대적 감각과 유럽 특유의 스타일이 결합되어 독특한 매력을 뽐내는 도시이다. 화려한 나이트라이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코미디언들이 웃음을 선사하는 Just for Laughs 페스티벌 등 한 해에 90여 개의 축제가 열려 보다 즐거운 여행을 선사한다.

음악을 사랑한다면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Montreal Jazz Festival)과 생헬렌 섬(Saint Helen's Island)에서 3일동안 열리는 음악과 미술 축제 오세아가(Osheaga)를 놓치지 말 것. 또한 몬트리올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박물관과 공연, 관광지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타 여행지에 비해 물가가 저렴한 편으로 여행 경비에 신경을 쓰는 젊은 여행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이다.

중세시대 멋을 보존한 프라하의 광장.

◆ 이스탄불, 터키

암스테르담과 파리의 비싼 물가가 부담스럽다면 이스탄불로 눈길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이스탄불은 친구들과 함께 그룹이나 연인과 함께 여행가기에 안성맞춤인 도시이다. 이스탄불의 심장으로 알려진 베이올루(Beyoglu)구역엔 멋들어진 카페와 맛있고 저렴한 먹거리가 풍성하다.

또한 쇼핑가와 고급 레스토랑, 세련된 바들이 모여 있어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여흥을 즐기기 위해 베이올루에 모여든다. 이스탄불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이스티클랄 카데시 거리를 방문하면 터키 특유의 활기를 느낄 수 있다.

◆ 프라하, 체코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크게 사랑받고 있는 프라하는 젊은 여행객이 보고 즐길거리가 무궁무진한 도시이다. 프라하는 저렴한 맥주와 화려한 클럽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고딕 스타일의 웅장한 성과 광장과 같이 중세시대의 멋을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들을 자랑한다.

프라하 관광의 중심지인 올드타운에서는 틴 성당과 댄싱하우스, 공산주의 박물관 등 다양한 건축물에서 체코의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다. 수제 맥주로 유명한 체코에서 소규모 맥주공장 방문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이다.

유럽의 가장 '핫'한 클럽 도시 중 하나로 알려진 프라하에는 다양한 클럽들이 즐비하다. 지즈코프(Zizkov) 구역에 있는 벙커 파루카르카(Bunkr Parukarka)는 1950년대에 공산당을 위한 핵 대피소였으나 지금은 아방가르드한 일렉트로와 전자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프라하 최고의 클럽으로 탈바꿈했다.

/최빛나기자 chsun@metroseoul.co.kr

강강술래 "나들이 먹거리, 비용 걱정 마세요"

영양간식 보양식 기획전 말일까지 최대 6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캠핑이나 나들이를 떠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영양간식 및 보양식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500g)와 한돈양념(500g), 돼지양념(750g), 술래양념(520g)으로

구성된 캠핑세트를 36%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또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한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10팩)는 2만5200원, 중용량박스(500㎖·10팩)는 2만8600원, 대용량박스(800㎖·10팩)는 4만3200원에 각각 60% 할인한다. 홍삼과 인삼을 넣은 건강식 뉴불갈비탕 박스(500㎖·10팩)는 56% 할인된 3만57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com) 고리마당-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보리미 찰보리빵 선물세트(40입)를 선물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내달 17일 한국관광공사 LA지사는 LA다저스 경기장에서 '한국관광의 밤'을 개최한다.

관광公, LA다저스 경기장서 '韓관광의 밤'

내달 17일 싸이 시구 등 행사

최근 현지에서 뜨거워지고 있는 한류 열풍이 다시 한번 LA다저스 경기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로스앤젤레스지사(지사장 김태석)는 "6월 17일 저녁 6시(현지시간) LA다저스 경기장에서 '한국관광의 밤(Korea Night)'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류현진 선수와 추신수 선수가 소속된 LA다저스와 텍사스 레인저스가 맞붙는 경기날에 맞춰 한국인 최고의 두 메이저리거를 응원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5만여 미국 관중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도현 소속 YB의 미니콘서트 및 애국가 제창, 투애니원(2NE1) 멤버인 씨엘(CL)의 시구가 경기 전 이벤트로 진행된다. 박봉이 출연한 한국관광 홍보 영상(Imagine Your Korea)이 다저스 전광판을 통해 상영된다. 경기장 입구 한국관광 홍보부스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 경기 중에는 한국 방문 항공권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한국관광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현대약품, 기미치료제 '벨라 더마화이트정' 출시

현대약품(대표이사 김영학)은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을 앞두고 더마화이트정의 휴약기에 복용할 수 있는 기미치료제 '벨라 더마화이트정'(사진)을 출시했다.

L-시스테인,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C 등이 함유된 경구용 기미치료제로 여드름, 두드러기, 습진, 기미, 주근깨로 인한 색소 침착증 등에 효능 효과가 있다.

더마화이트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미치료제의 주요 성분인 트라넥삼산은 흔히 지혈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기미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개월 이상 복용 시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휴약기가 필요하다. 벨라 더마화이트정은

트라넥삼산 성분을 뺀 제품으로 더마화이트정의 휴약기 2개월 동안에도 복용할 수 있다. /최빛나기자

포스코건설 "QSS로 중소기업 경영 혁신"

현장 진단 통해 맞춤형 혁신활동 도와… 자금 지원펀드 운영도

플랜트 설비 제작 업체 S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포스코건설 동반성장지원단과 함께 QSS(Quick Six Sigma) 혁신활동에 나섰다. 포스코 QSS 지침에 따라 S사 전 직원은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작업장 레이아웃(Lay-Out) 등을 정비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였다. 작업장 환경 개선으로 불필요한 작업 시간이 단축됐다. 자재 정리와 사무 개선 활동으로 약 3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했다. 공장의 지붕에 햇빛이 투과될 수 있도록 바꿔 조명 사용량 역시 크게 줄였다. 그 결과 연간 1500만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제품 품질 향상과 고객 신뢰도 제고 효과 또한 거뒀다. S사는 협력사 중 처음으로 QSS 명가 인증을 받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의 동반성장활동이 협력사에 힘을 보태며 건설업계 내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공동 발전을 위해 동반성장지원단을 구성해 활발한 지원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경영·전문기술·법률·세무·인사·노무 등 전문 분야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QSS다. QSS(Quick Six Sigma)는 즐겁고 보람있는 현장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을 일컫는다. 직원들의 의식 변화와 기업의 원가절감까지 동시에 이뤄낸다. 중소기업에서 QSS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면 진단을 통해 지원업체가 선정된다. QSS 컨설턴트가 선정 기업을 방문해 현장 진단을 실시, 맞춤형 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3정(정품, 정량, 정위치)과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설비의 기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마이머신(My Machine) 활동 등을 병행한다.

포스코건설은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매출액 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포스코패밀리사 지원에서 협력기업 지원펀드, 특별펀드, 상생보증 펀드를 운용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 협력업체와의 거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또한 공동 특허 등록 및 출원, 보유 특허의 기술 이전 등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전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글로벌 경쟁 역량을 지원코자 칠레,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시에는 공급사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형민기자 gentlem@metroseoul.co.kr

전국 아파트 3.3㎡당 매매가 6개월째 최고점

전국 일반아파트 3.3㎡당 매매가가 최고점을 경신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을 제외한 전국 일반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903만원이다. 일반아파트 가격은 2011년 885만원 최고점을 찍고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860만원으로 떨어졌다. 2014년 12월에 888만원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연속 최고점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아파트는 매주 최고점을 경신 중이다. 전국 최고점 시점인 2011년 대비 일반아파트 3.3㎡당 매매가 비중이 높은 곳은 ▲대구(141%) ▲경북(128%) ▲광주(117%) 등이다. 대구는 574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올랐다. 경북은 415만원에서 534만원, 광주는 449만원에서 527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최고점을 넘기지 못한 전북은 2011년 최고점인 500만원에 근접한 499만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아직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서울은 최고점인 2010년 1640만원 대비 94%인 1557만원이다. 경기는 최고점 2007년 985만원 대비 94% 수준인 92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일반아파트 매매가는 최고점을 회복했지만 재건축아파트는 최고점을 넘지 못했다.

전국 재건축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2063만원이다. 최고점인 2009년 2214만원의 94%다.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는 2938만원으로 최고점(3271만원) 대비 89%이다. 경기와 인천은 전년 대비 각 87%, 81% 수준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 거래량 증가세가 이어져 수도권 일반아파트의 최고점 가격 경신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의 최고점 경신 추가는 몇 년간 지속된 가격 상승 부담감과 공급물량 증가로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정원기자

한양 '안양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내달 분양

한양은 내달 초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서 '안양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19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전체 348가구 규모다.

국철1호선 안양역, KTX 광명역이 약 2㎞ 거리다. 안양역에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안양1번가 상권이, 광명역에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안양 혁신1호 학교인 삼봉초교를 비롯해 박달초교, 안양중·고교가 가깝다. 박달도서관, 석수도서관도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남측으로 수리산 도립공원이 있어 일부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하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이 잘 정비된 안양천수변공원과도 인접, 쾌적한 주거환경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한양 관계자는 "박달동 일대는 지난 7년여 간 신규공급이 없었던 지역이라 새 아파트 대한 관심이 높다"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4-bay 평면 등 혁신설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50-3번지 코스트코 맞은편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산하기자

신동아건설, 일사일촌 농촌 봉사활동 신동아건설 임직원은 지난 주말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 마을의 덕천마을을 찾아 농번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임직원 50여 명은 마을을 돌며 고추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잡초를 제거하고 묘목을 나르는 등 마을 주민들을 도왔다. 이날 신동아건설 김영구 부회장(왼쪽 두번째)과 박선규 홍천군수(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와 함께 고추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다.

/신동아건설 제공

수도권 택지지구 주상복합 인기 '부활'

반도건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공급한 '반도유보라 4차'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거와 상업시설을 분리한 설계로 인기를 끌었다. 반도유보라 4차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반도건설 제공

반도건설이 지난 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반도유보라 4차'는 주상복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2.98대 1로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김포지역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주거와 편의시설을 분리한 혁신설계가 주효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때 고급주택의 대명사로 불리다 금융위기 이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주상복합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주상복합은 최소한의 상업 기능에 아파트만 빽빽이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요자의 주거환경보다 공급자의 수익성이 먼저 고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주상복합이 주거·상업은 물론 업무·문화·교육 등의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단지로 변신을 꾀하면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택지지구의 경우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단지가 조성, 입지적 가치도 극대화하고 있다. 극대화 판교·광교·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최대 택지지구만 보더라도 주상복합은 역세권에 최대 상권을 끼고 있는 노른자위 입지에 들어섰다.

올 들어서는 주거와 주거 외 기능을 분리한 단지 구성으로 쾌적성과 편의성 두 토끼를 동시에 쫓는가 하면, 일반아파트 못지않은 평면도 선보이고 있다. 중소형 위주의 4-bay 판상형 평면에 3면 발코니 설계, 복층형 펜트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

우미건설이 22일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센트럴'의 경우 아파트에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 선택형 벽체 등의 다양한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또 오피스텔에는 아파트에나 공급되던 실별 계절창고를 제공한다.

중흥건설이 7월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선보일 '중흥S-클래스'는 아파트에 호수공원 조망 극대화를 위한 3면 개방형 평면과 알파룸, 가변형 벽체 등의 특화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일부에도 공원 조망을 위해 테라스하우스를 배치했다.

/이산하기자 pac@metroseoul.co.kr

근본 없는 연기, 진정성으로 승부 봐야죠

연극 '데스트랩' 배우 **이충주**

배우 이충주(30)는 연극 '데스트랩' 클리포드 앤더슨 역으로 데뷔 후 처음 연극 주인공을 맡았다. 희곡 '데스트랩' 대본을 차지하기 위해 스승 시드니 브륄의 섬 정체성을 이용하고 죽은 사람에게 "죽었나요?"라고 다정하게 말을 거는 클리포드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온전히 보여준다.

"성공을 위해서 물불가리지 않는 치밀한 사이코패스임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1막에선 순진한 모습을, 2막에선 관객들이 충격을 받도록 클리포드의 이중성을 더 극명하게 연기했죠. 요즘 저더만 봐도 무섭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잘 하고 있구나 싶죠. 클리포드의 파마 머리는 제가 제안했어요. 정돈되지 않은 스타일이 더 사이코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연극을 통해 연기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 그는 "연기의 깊이가 다르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고민하면서 연기한 적이 있나 싶다"고 말했다.

"연극을 꾸준히 했던 배우와 하지 않았던 배우의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뮤지컬과 달리 연극은 배역에만 몰입하죠.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시점에 연극을 안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연극하라고 했던 걸 실감하고 있죠. 관객이나 제작자에게 '이충주는 뮤지컬이 더 괜찮다'는 평가를 들으면 저는 실패한 거예요. 벼랑 끝에서 도전한 작품이 '데스트랩'입니다. 아직은 들리는 평가가 좋아서 뿌듯해요."

뮤지컬 '더데빌'(2014) 속 악마 엑스, 뮤지컬 '뱀파이어드라큘라'(2015)의 드라큘라에 이어 연극 '데스트랩' 클리포드까지 어둡고 강한 인상의 역할을 주로 연기했다. 그러나 차기작 뮤지컬 '사의 찬미'에선 일제시대 선구적 극작가이자 연극운동가였던 김우진으로 분해 변신을 예고했다.

"실제 성격과 달라 처음엔 어두운 역할이 어색했어요. 행동이나 말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무대에서 표현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하지만 '사의 찬미'에선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원래 제안 들어온 역할은 김우진이 아니었어요. 공격은 충분히 해봤으니까 이젠 공격 당해보려고요."

이충주는 성악가인 고모 내외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그는 뮤지컬 음악 감독의 추천으로 무대에 처음 올랐다.

"처음엔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주인공을 하면 재미있겠지. 해보고 그만 두자'는 목표로 버텼죠. 그런데 할수록 보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연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본 없는 연기를 한다'고 항상 말하죠. 제가 승부볼 수 있는 건 진정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 배우를 꿈꿨던 친구가 아니고 타고난 아이도 아니다보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충주는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더 도약해야한다"고 자신의 현 위치를 돌아봤다.

"대학로에서 공연이 계속 잡히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다양한 무대에 서고 싶어요. 내년이든 언제든 더 컸으면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계획은 없어요. 섭외가 들어오면 안 할 이유는 없죠. 대중의 인지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제 꿈은 무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대중 덕택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연예인은 절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분야에서 잘 될 거 같지도 않아요.(웃음)"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기준드림이(손진영)

데뷔 후 첫 연극 주인공 '클리포드' 역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이중성 그려

벼랑 끝에서 도전한 작품, 평가 좋아 뿌듯
다양한 무대에 서고파… 연예인은 글쎄요

star bag

23~24일 첫 디너쇼

가수 **김장훈**이 오는 23~24일 서울 마포구 클럽 AMP에서 데뷔 후 첫 디너쇼를 개최한다.

일반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후 장소가 마음에 들어 디너로쇼 진행하게 됐다. 티켓 가격은 일반 디너쇼에 비해 저렴한 4만원으로 주류나 음식을 원하는 관객은 각자 주문할 수 있다.

100대 1 경쟁률 뚫어

신인 배우 **박연수**가 100대 1 경쟁률을 뚫고 KBS 새 수목극 '기면'에 출연한다.

주인공 지숙(수애)의 친구이자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명화 역을 연기한다.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고충을 함께 겪으며 위로가 돼 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한다. 27일 오후 10시 첫 방송.

MBC 월화극 '화정' 합류

배우 **차예련**이 MBC 월화드라마 '화정'에 조선 인조의 후궁 소용 조씨 역할로 합류한다.

뛰어난 미모를 갖춘 인물로 조선 시대의 팜므파탈 캐릭터로 소속사는 "극 중반부터 나올 예정이지만 워낙 강렬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랜 고민 끝에 전격 합류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클럽데이 시작 본격 활동

정준영밴드가 오는 29일 오후 10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레진 코믹스 브이홀에서 열리는 제48회 라이브 클럽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가수 정준영이 결성한 정준영 밴드는 조대민(기타), 정석원(베이스), 이현규(드럼)으로 구성됐다. 27일 첫 앨범도 나온다.

"노래 1곡 스트리밍에 0.6원 벌어요"

멜론·소리바다 등 유통서비스업체 40% 독식
바른음악협동조합 출범 새 플랫폼 개발중

CD에서 MP3파일로, 다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 유통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음성 파일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곡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음악을 만드는 이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 이쑤시개 1개 값도 못한 현실

현재 음원 수익 분배율은 음원서비스업체 40%, 저작인접권자(제작사) 44%, 저작권자(작사·작곡) 10%, 실연권자(가수·연주자) 6%다. 그러나 음원 유통 수수료(3.8%)를 적용하면 제작사가 35.2%를 가져간다. 제작사가 음원 서비스 업체보다 더 적게 돈을 버는 구조다.

국내 음원서비스 업계가 서비스 중인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으면 1곡당 6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 중 권리자(제작사·작권자·실연권자)의 수익은 3.6원에 불과하다. 이쑤시개 1개(약 2.4~4원) 값보다

적다. 여기에 음악을 만든 창작자가 가져가는 돈은 겨우 0.6원이다. 음악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 것이다.

인디신에서 활동 중인 혼성듀오 소프트 웨이브는 모든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른다. 지난 앨범까진 기획사 따로 없이 제작까지 도맡아 했기 때문에 음원 수익 중 권리자 부분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인디밴드이다 보니 큰 돈이 들어오진 않았다. 멤버 레이첼은 그룹 활동과 별개로 학원 강사로도 일하고 있다. 그는 "공연하는 금, 토,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모두 일한다"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유명 가수에게도 정규 앨범 발매는 큰 모험이 됐다. 10곡 이상이 수록된 정규 앨범을 통째로 듣는 일은 CD 플레이어가 MP3 플레이어로 대체되면서 함께 사라졌다. 최근 솔로 앨범을 낸 가수 정엽 역시 "요즘 같은 때에 정규 앨범을 내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가수로서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 히트 작곡가 현실도 차이 없어

히트곡 '벚꽃엔딩'을 만든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이 저작권료로 현재까지 약 46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타이틀곡을 작사·작곡한 A씨. 그가 만든 노래는 거리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인기를 모았지만 그가 '돈방석'에 앉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A씨는 "그룹 멤버와 공동 작곡을 한 경우엔 저작권 수익을 또 나눠서 갖는다. 요즘엔 공동 작사·작곡이 흔한 일이 돼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우스갯소리로 창작자가 노래로 버는 돈은 시럭(0.6원)만도 못하다고들 한다"고 밝혔다.

그의 지적대로 2012년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벌어들인 돈은 해외와 국내를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에 의하면 '강남스타일'이 해외에서 약 28억 원의 음원 수익을 기록했지만, 국내 시장에선 65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내 음원 유통사는 무제한 스트리밍 패키지를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음악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다. 해외 음원 유통 플랫폼인 아이튠즈와 비교했을 때 국내 유통사가 가져가는 비중이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창작자에게 불리한 음원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결국 음악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출범한 바른음원협동조합(이하 바음협)은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음원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바음협의 이사장인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30년 동안 직업으로 음악을 해오며 음악시장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됐던 때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내보다 시장이 조금 낫다고 볼 수 있는 해외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미국 유명 힙합 뮤지션 제이지(Jay-Z)는 '타이달(TIDAL)'이라는 고음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었다. '타이달'은 기존 서비스와 달리 음원 보유자인 창작자가 직접 음원을 판매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미 칸예 웨스트, 마돈나, 비욘세, 다프트펑크, 리한나, 어셔 등 인기 가수들도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된다.

바음협은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진 않았으나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남궁연, 리아, MC메타, 박완규 등 300여 명의 뮤지션이 바음협에 가입해 힘을 보태고 있다.

/김지민기자 anjuim@metroseoul.co.kr

한국영화, 7주 만에 정상 탈환

'악의 연대기' 1위 첫 등장
'어벤져스2' 1000만 돌파

한국영화가 7주 만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지난 14일 개봉한 영화 '악의 연대기'는 15일부터 17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전국 776개 스크린에서 73만2976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로 첫 등장했다. 누적 관객수는 85만9907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영화는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스물'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이래로 박스오피스 정상을 '분노의 질주: 더 세븐'과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 등 할리우드 영화에 내줘야 했다. '악의 연대기'는 7주 만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한국영화의 부활을 예고했다. '간신' '무뢰한' 등도 개봉을 앞두고 있어 한국영화의 선전이 계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30년 만에 돌아온 속편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는 박스오피스 2위로 시작했다. '악의 연대기'보다 많은 799개 스크린에서 상영됐지만 70만8323명의 관객을 모아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개봉 이후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흥행 추이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어벤져스2'는 개봉 25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theater review

/전효순기자

■술과 눈물과 지킬앤 하이드

생각 없이 웃어봅시다

단순한 구성·몸개그… 장르물 대세 연극계 '휴식' 제공

연극 '술과 눈물과 지킬앤하이드'는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코미디다.

묵직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원작 '지킬앤하이드'를 생각했다면 당황스러울 것이다. 연극 '술과 눈물과 지킬앤하이드'에서 지킬은 틈 없이 반듯한 사람이고, 하이드는 감춰뒀던 뻔뻔한 본능으로 무장한 날라리다.

지킬 박사는(진용인·최영엽) 하이드로 변신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 학회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하이드 역할을 해 줄 배우 빅터(이시훈)와 리허설을 한다. 지킬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약혼녀 이브(신의정)는 하이드의 남성미에 반하고, 자유분방한 내면을 숨기고 살던 이브 역시 약을 먹고 하이디로 변한다.

지킬은 이브를 사랑했고 하이디에겐 적응하지 못한다. 반면 이브는 지킬보다는 하이드가 좋다. 극 초반 '인간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 더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나를 좋아하는 건 언제나 겁먹었는 사람'이라는 이브의 대사가 이해되는 순간이다.

웃음 포인트는 지킬과 빅터, 이브의 몸개그다. 빅터의 왼숭이 같은 몸짓, 느끼한 말투가 지킬의 반듯함과 대비된다. 조신한 이브와 달리 희화적인 하이디는 연극을 한층 더 식시하게 만든다.

취향의 차이가 극명하게 반영될 코미디물이다. 몸개그와 가벼운 대사가 맞지 않는 관객이라면 100분 공연 후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술과 눈물과 지킬앤하이드'는 장르물이 대세인 연극계에 잠시 모든 생각을 접고 쉴 수 있는 휴식이 되기에 충분하다.

7월5일까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공연된다.

주상욱 “주연 스트레스, 이번엔 없어요”

배우 주상욱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KBS2 수목드라마 '복면검사'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KBS2 새 수목극 '복면검사' 자신… "무릎 연골 다쳤지만 액션 계속 하고파"

배우 주상욱이 주연 스트레스를 털어냈다.

주상욱은 KBS2 새 수목극 '복면검사'에서 납부지검 검사 하대철 역을 맡았다. 전형적인 출세 지향적인 검사지만 밤에는 복면을 쓰고 열정적으로 악을 벌하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주연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를 겪은 사연을 이야기한 바 있다.

18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주상욱은 "KBS 드라마 '굿닥터'를 할 때였다. 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이라며 "이상하게 '복면검사'는 부담이 없다. 첫 방송만 기다려진다.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자신이 있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복면을 쓰고 액션 연기를 하는 데 대해선 "얼마 전 종합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폐와 간 모두 깨끗하다. 아직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 힘들지 않다"며 "프로레슬링 기술이 나온다. 액션을 많이 하고 싶은데 촬영을 하다가 무릎 연골이 다쳐서 현재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몸 동작보다는 복면 안에 있는 눈빛이 더 중요하다"고 캐릭터 주안점을 설명했다.

전산 감독은 이날 "모티브는 영화 '반칙왕'이다. 맨 얼굴로는 시도하지 못했던 정의로운 행동이 복면을 쓰면 가능하다"며 "사회적으로 공고해진 악을 현실적으로 바로 잡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드라마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주려면 비현실적인 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복면의 의미를 언급했다.

'복면검사'는 속물검사 하대철과 열정 넘치는 감정수사관 유민희(김선아)의 활약을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드라마다. '착하지 않은 여자들' 후속 작으로 오는 20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김구라, 백종원 셰프 덕에 요리 재능 발견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5분

방송인 김구라가 백종원 셰프의 요리 덕분에 숨겨져 있던 요리 능력을 발휘한다. 다양한 음식 경험과 풍부한 상식, 특유의 예능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방송은 백 셰프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요리법을 조명한다. 김구라 뿐만 아니라 윤상, 박정철, 손호준과 백종원 셰프의 남남케미도 관전 포인트다. 프로그램은 요리 초보인 남성 연예인들이 한식부터 중식, 양식, 디저트까지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과정을 담는다.

/전효진기자 jeonhj89@

◆ KBS1 '이웃집 찰스' 오후 7시30분

한국에서 생활 중인 이탈리안 셰프 사무엘의 연인 박효진이 "사무엘과의 삼시세끼를 가장 고민한다"고 밝힌다. 저콜 추구, 소고기 향꿀을 금지하는 사무엘 때문에 박효진은 괴롭다. 사무엘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식 이탈리아 음식을 확인해 보자.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한민고등학교 엘리트 전학생 윤소희의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된다. 윤소희는 이번주 음악 수업 시간에 최강 음치로 웃음을 자아낼 예정이다. 노래하기 앞서 입을 푸는 과정에서부터 원곡을 무시한 채 음 이탈을 일삼는 모습이 관전 포인트다.

◆ SBS '썸남썸녀' 오후 11시15분

채정안의 학창 시절이 전부 공개된다. 이날 멤버들은 연예계에 살아있던 시절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채정안은 중고등학교 시절 자주 가던 학교 앞 분식집을 방문해 DJ 오빠를 추억한다. 친구들이 증언하는 학창 시절 채정안의 인기는 어땠을까?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25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0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10 톡! 톡! 보니하니 (3842회) 00 헬로! 슈퍼맘스 25 내 친구 아서 45 스케치 원은	00 애니 코코몽 (재) 1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 (재) 55 검디의 친구들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오늘부터 사랑해 (12회)	15 불굴의 차여사 (13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59회)	10 지피더디스 30 EBS 뉴스 55 극한 직업 (재)	00 검디의 친구들(한국어) (재) 25 꼬마 탐험가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 63 40 꼬마 탐험가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7회)	30 부잣집 유쾌 극장 단막 (13회) 55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2회)	00 SBS 8 뉴스 55 2015 서울 디지털 포럼 특집다큐 초기업, 플랫폼이 세상을 바꾼다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 (재) 15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5 스펠린드 인터뷰 35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가족의 탄생 기획 시사기획 창 55 국민대통합 우리가	00 후아유 - 학교 2015 (2회)	00 화정 (12회)	00 풍문으로 들었쇼 (20회)	45 리얼극장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스쿨 오브 락〉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동아시아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힐링캠프	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독립영화관 〈해의 리더〉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이슈점검 PD의 요리조리 기획	0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비정상회담 (46회) (재)		00 잇잇뷰 2015 (15회)			◆ 프로야구 18:30 롯데 vs KT (MBC SPORTS+, SPOTV2) LG vs 넥센 (SBS SPORTS, ...) KIA vs 한화 (SKY SPORTS) KT vs NC (SPOTV) 삼성 vs 두산 (MBC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10 너의 목소리가 보여 (12회) (재)	30 올리브쇼 더 NEW (2회)	00 〈극한직업〉 갱에게	40 원노운	
20시	50 JTBC 뉴스룸	40 현장토크쇼 TAXI (380회)	00 오늘 뭐 먹지? (26~52회)	00 〈현재 제한 기상 재난지도〉 서유가 사라진다면?		
21시	40 백년손님 골라지 곤디 (29회)	40 집밥 백선생 (1회)	00 올리브쇼 2015 (17회)	00 허블, 23,000의 우주 여행		
22시			00 오늘 뭐 먹지? (11회)	00 날 타이슨의 스타 토크 (2회)	10 찰오버 1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6회)	00 식샤를 합시다2 (14회)	00 올리브쇼 2015 (17회)	00 〈위험지역 프로젝트2〉 초자연 무법관찰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27회)	20 현장토크쇼 TAXI (380회)	00 노 오븐 디저트 2 (2회)	00 〈극한직업〉 장어잡이	30 컨트롤	

2014-2015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확정한 FC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메시 "득점왕은 양보할게"

호날두와 4골차… 프리메라리가 우승 트레블 눈앞

FC바르셀로나가 2014-2015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다.

바르셀로나는 1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메라리가 37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30승3무4패로 승점 93을 기록한 바르셀로나는 2위 레알 마드리드(28승2무6패)와의 승점 차를 4로 유지해 남은 한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2012-2013시즌 이후 2년 만에 패권을 탈환하며 통산 23번째 우승을 수확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여전히 32회의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리오넬 메시는 후반 20분 페드로의 패스를 왼발 슛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뽑아냈다. 리그 41호 골이다.

하지만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혼자 세 골을 몰아치며 팀의 4-1 승리를 이끌었다. 리그 45호 골로 한 경기를 남기고 메시와의 격차를 4골로 벌리면서 2년 연속 득점왕 등극이 유력해졌다.

다만 메시는 바르셀로나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코파델레이(스페인 국왕컵) 결승에 진출한 상태에서 트레블(3관왕)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8-2009시즌 바르셀로나의 트레블을 던진 메시가 이번 시즌 또 트레블을 달성하면 축구 역사상 트레블을 2번 경험한 최초의 선수가 된다.

/송병훈기자 mian@metroseoul.co.kr

김성근 한화 감독 '친정' 인천 간다

SK와 주중 3연전 격돌

김성근(73) 한화 이글스 감독이 이번 주 SK 와이번스가 연고로 있는 인천으로 향한다.

한화는 19~21일 인천에서 SK와 원정 3연전을 치른다. 김 감독은 SK 재임 시절 자신을 응원했던 인천 팬들 앞에서 SK와 명보였는 승부를 펼쳐야 한다. 이미 4월 24~26일 대전에서 SK를 상대해 3전 전승을 거둔 바 있다.

휴 설욕전을 벼르고 있는 SK는 재활에 전념하던 외국인 투수 트래비스 밴와트가 한화전에서 복귀하고, 토종 에이스 김광현과 외국인 투수 메릴 켈리가 선발로 등판한다.

김 감독은 "4월에는 SK의 경기 감각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만나 운이 좋았다"며 "SK는 언제든 올라설 수 있는 좋은 팀"이라고 몸을 낮췄다.

3년 9개월 만에 인천을 찾아 익숙지 않은 원정 더그아웃을 쓰는 김 감독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SK팬의 반응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한화는 SK와 주중 3연전을 끝내면 수원으로 이동해 KT 위즈를 상대한다.

선두 자리를 빼앗은 두산 베어스는 삼성 라이온즈를 잠실구장으로 불러들여 주중 3연전을 벌인다. 삼성은 박한이의 복귀로 타선에 힘을 얻었지만 불펜 에이스 안지만의 허리 부상으로 두수레이너 소 흔들리는 상황이다.

목동구장에서는 넥센 히어로즈와 LG 트윈스가 격돌하고 롯데 자이언츠는 사직구장으로 KIA 타이거즈를 불러 주중 3연전을 펼친다.

/하정민기자

강정호, 심판 실수로 행운의 안타

3할 복귀… 추신수 무안타 침묵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타율 3할에 재진입했다.

강정호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1개를 얻었다. 전날 3안타를 몰아친 강정호는 이날 안타 1개를 보태 타율 0.300(70타수 21안타)으로 5일 만에 3할에 복귀했다.

강정호는 0-0이던 2회 1사 주자 없는 첫 타석에서 3루수 앞으로 평범한 땅볼을 날렸지만, 3루수가 느리게 수비하는 사이 재빨리 1루를 밟았다. 비디오 재생화면에서는 강정호의 아웃 타이밍이었지만 1루 심판은 세이프를 선언했다. 컵스 벤치가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지는 않아 강정호의 내야안타로 기록됐다.

4회에는 병살타로 고개를 숙였고, 7회에는 잘맞은 타구가 중견수 정면으로 향하는 불운을 겪었다. 팀이 3-0으로 앞선 9회에는 볼넷을 골랐다. 피츠버그는 이날 3-0으로 승리해 4연패에서 벗어났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하루 숨을 골랐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나선 추신수는 삼진 3개를 당하고 볼넷 1개를 골랐다. 3타수 무안타에 그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2(124타수 30안타)로 약간 하락했다. 텍사스는 미치 모어랜드의 2점 홈런 등을 앞세워 5-1로 이기고 3연패에서 탈출했다.

/하정민기자

매킬로이, 21언더 최저타 신기록

PGA투어 웰스파고 정상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시즌 2승을 수확했다.

매킬로이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퀘일할로 클럽(파72·7562야드)에서 열린 웰스파고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로 패트릭 로저스, 웨브 심프슨(이상 미국)의 공동 2위(14언더파) 그룹을 무려 7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달 캐딜락 매치플레이에서 우승한 매킬로이는 이로써 PGA 투어 시즌 2승과 개인 통산 11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특히 전날 3라운드에서 코스 최저타수인 11언더파의 신기록을 작성했다. 21언더파 역시 대회 최저타수 신기록이다.

한국계 선수로는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가 공동 13위(9언더파)로 최고 성적을 거뒀다. 최경주(45·SK텔레콤)가 공동 28위(5언더파), 배상문(29)이 공동 58위(1언더파)로 대회를 마감했다.

/하정민기자

여민지 부상으로 대표팀 하차

여자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여민지(대전스포츠토토)가 부상으로 이탈되면서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사상 첫 16강 진출을 노리는 윤덕여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여민지가 지난 16일 능곡고와의 연습경기 도중 무릎을 다쳤다"며 "정밀진단 결과 왼쪽 무릎 십자 인대가 파열돼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에서 여민지는 지소연(첼시 레이디스)-박은선(로시얀카)과 함께 공격의 핵심을 이루는 선수다. 윤 감독은 이날 여민지를 최종엔트리에서 제외하고 대체선수로 박희영(대전스포츠토토)을 선택했다.

과대광고에 멍드는 소비자의 뇌

최치선의 세상만사

세계 최초의 광고는 BC 196년의 로제타석(Rosetta stone)이다. 이집트 나일강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집트왕 프톨레마이를 숭앙하는 내용을 광고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원전부터 시작된 광고는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수많은 지면 매체와 TV에 이어 스마트폰을 통해 광고가 24시간 방출되고 있는데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전 세계의 소식들이 스마트 폰으로 들어온 이후 광고 시장 역시 세계화 되었다. 광고는 찰나 몇 초 안에 소비자를 현혹시켜야 한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뇌도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광고들을 접하면서 더 자극적인 것에 점점 세뇌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인가? 업체들은 저마다 소비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카피도 좀 더 선정적이고 폭발적인 그리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표현에 집착한다. 그러다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잘못된 광고로 인한 1차적 피해는 소비자다. 하지만 해당업체도 도덕성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식품이나 화장품 또는 제약의 경우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데 성공한 일동제약(회장 이정치)의 경우 화장품 브랜드 '고유에'의 '마스크팩'은 과대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회 사용으로도 얼굴 리프팅 효과를 갖는다'는 일동제약의 광고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2개월 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일동제약은 홈쇼핑에서 10회 연속 매진 행진을 한 덕분에 지난해 상반기에만 화장품 사업에서 5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영업이익 흑자를 내는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일동제약은 제품 출시 후 '녹는실 리프팅 시술에 착안해 만든 화장품'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녹는실 리프팅은 최근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쁘띠 성형'이라 불리며 피부에 실을 삽입해 처진 살을 당겨 얼굴 라인을 살려주는 시술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부 속의 실이 자연히 녹아 없어진다고 해서 일명 '녹는실 리프팅'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동제약의 이 같은 광고는 자칫 소비자들이 실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도 1회 사용만으로 그 효능은 확인될 수 없다"며 "진피 속 탄력 개선도 화장품 광고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사는 식약처 행정 처분을 받기 4일 전 위반 제품에 성분을 하나 추가한 리뉴얼 제품을 출시해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광고의 위력은 실로 강력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생활 습관과 가치관마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광고를 가리켜 사회를 바꾸는 거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광고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광고는 양날의 칼과 같은지 모른다. 함부로 잡거나 사용하면 자칫 손에 베인다. 수많은 광고 중에서 안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자칫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필터링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엄격한 제재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부장

KBS의 진짜 변혁을 기다려본다

기자 수첩
전 효 진
<문화스포츠부 기자>

KBS가 금요일 밤 고정 시청자 잡기에 나섰다.

지난해 KBS 개편간담회에서 사측은 금요일 오후 9시 시간대를 플랫폼이 구역으로 설정, 예능·드라마 구분 없이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마 '스파이'를 시작으로 지난 15일엔 예능 드라마이자 김수현·지태현 공효진·아이유라는 거물급 스타 배우들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프로듀사'와 이진구·천현이 출연하는 '오렌지 마말레이드'가 방송됐다. 앞선 시간대에 편성된 작품이 흥행하지 못하면 편성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지만 KBS는 오후 9시15분부터 3시간여 동안 두 편의 드라마를 연속 편성하는 강수를 뒀다.

KBS는 자신만만하다. 오진산 KBS 콘텐츠창의센터장은 "'오렌지 마말레이드' '프로듀사'는 금요일 밤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며 "KBS는 올 초부터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 항공 모함처럼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일단 방향을 잡고 움직이면 세상을 놀라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도의 절정이 이번 달 열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TV를 넘어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 한류 콘서트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S가 사활을 건 '프로듀사'와 '오렌지마말레이드'는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좋은 결과를 내며 기대에 부응했다.

지상파가 금요일 저녁 편성에 무게를 싣기 시작한 건 케이블과 종편 프로그램의 성공 때문이다. 케이블과 종편은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집에서 보내는 시청자를 고려하지 못한 지상파에 '삼시세끼' '꽃보다할배' '미생' 등 차별화된 작품을 내세웠다. '지상파면 무조건 된다'는 공식이 깨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 방송 KBS의 변화는 고리타분한 권력 놀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변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하다.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스타 시스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다. 스타가 흥행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건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KBS는 스타를 내세웠다. 내부 개혁이 선행된 콘텐츠 자체만으로 승부를 거는 진짜 변혁을 기다려본다.

Gang-nam Major Company Spy Camera Uproar

There was spy camera uproar in Gang-nam Major company office building.

A spy camera was inside the women changing room. The suspect was the employee of a security company who is in charge of administrating the building. It was reported on the 15th that he had set up the camera to get money through the pictures taken by the spy camera. The camera was found to store 140 women changing their clothes. One of the company authorities who requested anonymity said, "They ordered extra attention so that this may not be released elsewhere." Also they are making time to talk face to face in order to reduce discontentment and people are submitted for censorship so the spy video would not be released through Kakao Talk.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도균) 강사

강남 대기업 몰카 소동

서울 강남의 대기업 사옥에서 몰래 카메라 소동이 벌어졌다. 헬스장내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범인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범인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이 설치한 카메라에는 여직원 140여명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사 관계자는 "회사측은 이 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 이미지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보안'을 지시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을 상대로 면담을 하고 있으며, 카톡을 통해 몰카내용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휴대전화를 검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 사

■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승진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전략국장 파견 구한서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실장 고기동 ▷기획재정담당관 김선국 ▷조직기획과장 김현국 ▷사회조직과장 심영계
■ 서울도시철도공사
△운영본부장(상임이사) 최윤운
■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최경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김희삼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신규임용 ▷충남인력개발원장 동의진
■ 한국해양재단
△직제보강(승진) ▷총무부 총무2팀장 이재훈 △전보 ▷인적자원개발부 선임조사역(외자연금) 엄금미 크게 전담 1F(팀장) 김종욱
■ 경북과학대학교
▷부총장 김현정

부 고

▲김대석(재갈모지 이버랜드 상무)씨 장녀, 전석(KAIST 교수)씨 동생상 = 17일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 ☎02-3410-6903
▲김순례씨 별세, 신카정(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장)·영진(주)이이디큐 전무이사) 영재(시울 용수 훈인청유학원장)·경선(예인산업 대표)씨 모친상, 소명·임난희·박재은·김선미씨 모상 = 18일, 해남제일장례식장 1관, 발인 20일 ☎061-534-4441
▲김유규씨 별세, 원중(대학교 교장)·유종(KTV 팀송제작부장)씨 부친상, 이수원(홍도초 교사)씨 남편상, 교감(씨) 시부상 = 18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30분
▲담석주(전 신창초등학교 교장)씨 별세, 해수·해식(전 부산시 테니스협회 수석부회장)·해성(삼성화재 대리점운영)·해영(KBO사무총장)씨 부친상, 박동국(케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전시임(전 한화건설 지사장)씨 빙부상 = 18일 오전 3시 4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2-3010-2262
▲하윤기씨 별세, 하종철(충주 남산초등학교 교감)씨 부친상 = 18일 오전 8시, 강원도 원주시 문막 수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33-740-6930
▲홍동호씨 별세, 미준교(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씨 빙부상 = 17일 오후 1시, 한서병원장례식장 3분향소, 발인 19일 오전 8시 ☎063-570-7044

기사제보=02)721-9861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100%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